

11월 8(월) / 롬 7-9

- ▶ **내용요약** :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그 한계를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그 자체만으로 보면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인 것이다. 그러나 8장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언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자 은혜인 것이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8장)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 **생각하기** :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소멸시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11월 11일(목) / 고전 1-3

- ▶ **내용요약** :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근심을 끼쳤다. 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교만했고, 분열하였으며, 음란한 일들을 범하기도 했다.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1장에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그들의 분쟁을 지적한 후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했다. 비록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선언한 것이다. 2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하고자 했다. 한편 3장에서는 한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역설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장)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 )뿐이니라”
- ▶ **생각하기** :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자.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것이다.

11월 14일(일) / 고전 10-12

- ▶ **내용요약** :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상숭배를 멀리하도록 경고했다. 우상을 향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서로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는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11장에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 교훈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만찬과 관련

11월 9일(화) / 롬 10-12

- ▶ **내용요약** :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11장에서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음을 설명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소망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겸손의 이유가 된다. 12장에서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영적 예배와 구별된 삶에 대해 강조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12장)  
“너희는 이 ( )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 )하도록 하라”
- ▶ **생각하기** :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즉 복음전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전도자를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11월 12일(금) / 고전 4-6

- ▶ **내용요약** :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고린도교회를 건져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교만함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편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음행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냄으로써 그러한 악을 교회 안에서 끊어버리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6장에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까지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훈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4장)  
“하나님의 나라는 ( )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 )에 있음이라”
- ▶ **생각하기** :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일어난다. 또한 세상 법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도 분쟁이 있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질서와 배려 없는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에 바울은 성만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과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교훈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했다. 은사와 사역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강력하게 교훈했다.

11월 10일(수) / 롬 13-16

- ▶ **내용요약** :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 복종할 것을 교훈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하면서,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14장에서 바울은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위선을 경계하도록 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닌, 위선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비판은 영혼을 죽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음의 교리 뿐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15장에서도 바울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면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16장)  
“너희가 선한 데 ( )롭고 악한 데 ( )하기를 원하노라”
- ▶ **생각하기** : 교회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 거룩한 모양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자.

11월 13일(토) / 고전 7-9

- ▶ **내용요약** :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는 성적 타락에 빠져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독신에 대한 권면도 했으나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약자들을 배려한 것이기도 했다.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 교훈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9장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말하며 자신에 대해 변론했다. 그러나 이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 ▶ **질문** :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8장)
- ▶ **생각하기** :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 ▶ **질문** :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가? (10장)
- ▶ **생각하기** :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모든 다양한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인 것이다. 비교하는 일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자.